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목 차>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2.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진희철
	담당부서 (과)	전기통신제품안전 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상모		연락처	043-870-5445
	과장	이응로		이메일	chinhc@mail.go.kr

2023. 04.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2.규제조문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3.위임법령	법률 제34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4.17~2023.06.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 (~'23.10.19.)								
	7.규제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td><td>22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22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22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지정신청, 수수료	지정을 통한 기관 신뢰성 확보	지정신청, 수수료					
		주요내용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① <u>안전확인시험기관</u>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u>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u> 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u>나목</u> 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 ① <u>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등” 이라 한다)</u>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u>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u> 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 <u>가목부터 다목</u> 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u>안전확인시험기관</u> 지정분류 및 범위는 <u>별표 2 또는 별표 5</u> 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② <u>안전인증기관등의</u> 지정분류 및 범위는 <u>별표 1,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 또는 별표 5</u> 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 ① <u>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u>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 수수료) ① <u>안전인증기관등</u>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u>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u> 평가방법	제16조(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u> 평가방법에 대하여 필요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 공고)」에 따른다. 제18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u>안전확인시험기관</u>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u>안전인증기관등</u>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 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미도입
	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 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마련으로 규제 도입
규제대안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으로 업계 자율성 확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의 절차 미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 초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을 참고하고 안전성 검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3. 규제목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절차를 준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등 법인/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등 법인/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술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등이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등
⑤ 예비분석내용		○ 유사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입법례를 검토 시 인증 업무를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도입하는 사항임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시험/인증기관 중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같이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또한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들. 다만,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절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 동 법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23.2.15.) 및 업계 간담회('23.3.29.)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4.17.~'23.6.16)
-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으로 이동	'23.3.20. 공포

4. 종합결론

-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
-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 마련, 지정 수수료, 지정심사, 지정서 재교부 등을 규정하는 제도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지정신청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지정신청 수수료*피규제자수(1451520*22)
근거설명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22개 기관이 "'23년 동시에 신청한다고 가정(신청 수수료 5만원) ○ 외부 심사원 2명이 2일에 걸친 시험을 하는 경우, '22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총 1,401,520원 심사수수료 발생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편익항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해당 기관의 대외 신인도 향상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지정신청
비용항목	업무수행체계 구축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업무수행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 조직을 검사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력 발생

②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③ 정부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심사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23년 동시 신청(최대 피규제자수)*회당 투입일*회당 투입인원*출장비(서울기준)(22*2*1*68200)
근거설명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 기관을 기준으로 최대 22곳이 한 번에 신청한다고 가정 ○ 내부 인원 1명이 이틀 출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지정심사 ○ 서울기준으로 하루 출장비는 68200원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한 제품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므로 국민의 안전 확보 기대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에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2.규제조문	제3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표 3의2, 별표 23												
	3.위임법령	시행규칙 제3조, 제2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4.17~2023.06.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 (~'23.10.19.)												
	7.규제내용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 등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재사용전지 제조업체</td><td>14</td></tr><tr><td>이해관계자</td><td>국민(소비자)</td><td>약 5천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14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천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14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천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안전성검사 신청 및 표시	안전한 제품임을 홍보	안전성검사 신청 및 표시									
		주요내용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56조의2(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제56조의3(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현행	개정안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u>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u>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u>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u>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u>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는</u>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9조(표시방법)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u>및</u>	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u>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안전성검사를 한 자 및 받은 자는</u>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u>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55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u>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u>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시등의 표시는</u>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59조(표시방법)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u>공</u>

현행	개정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u>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u> 마크는 <u>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u>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략) ② (생략) <신설>	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안전성검사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u>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u> 마크는 <u>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안전성검사</u>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의2] <신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th>세부품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재사용전지</td><td>① 재사용전지모듈</td></tr> <tr> <td>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td></tr> <tr> <td></td><td>비고:</td></tr> <tr> <td></td><td>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 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td></tr> <tr> <td></td><td>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td></tr> <tr> <td></td><td>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td></tr> </tbody> </table>	품목	세부품목	1. 재사용전지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 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품목	세부품목													
1. 재사용전지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 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개정> 1.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u>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성검사의 마크</u> 2. 안전인증 · <u>안전확인신고 · 안전성검사</u>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u>공급자적합성확인</u>의 표시

현 행	개 정 안
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u>시등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u> 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내용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 구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미도입
	내용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 미구체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 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 구체화로 규제 도입
규제대안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 미구체화로 업계 자율 부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 미구체화로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 초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3. 규제목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당제품의 신뢰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술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이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 유사사례 분석 - 유사입법례(동 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에 따른 수수료 포함)를 검토 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통해 안전성 해당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들. 다만,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은 동 법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제도와 유사하게 기준을 마련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	--	---------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23.2.15.) 및 업계 간담회('23.3.29.)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4.17.~'23.6.16)
-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으로 이동	'23.3.20. 공포

4. 종합결론

-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
-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구체적 지정, 안전성검사,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되고 있으므로 사용후전지로 제작한 재사용전지시스템 또한 유사한 모델 출시 경향으로 예측

<전기차 사용후전지 발생 및 회수 예측량>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국내 발생 예상량(A)	5,914	13,826	31,696	42,092	56,966	71,842	89,639	107,520
센터 회수 예상량(B)	637	1,489	3,412	4,532	6,133	7,735	9,651	11,576

* $B = A \times 20.0\%(\text{국내 말소율}) \times 76.9\%(\text{대구·경북·제주 제외 지자체 보급률}) \times 70.0\%(\text{실 수명 반영 등})$

* 국내 발생 예상량 출처 :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21. 11월)

<ESS용 전지 인증 모델 수>

	2019	2020	2021	2022	계
국산	11	22	5	6	44
해외 수입	0	3	5	4	12
합계	11	25	10	10	56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활동제목	표시
비용항목	표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해당 제품에 스티커 형식의 표시를 함 ○ 검사된 제품을 얼마나 분해하고 조립하여 최종 제품으로 만들지 출시 수량 등이 예측 불가하여 정량적 평가는 곤란하나 제품에 표시를 위한 스티커 인쇄는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업체
활동제 목	재사용전지의 신뢰성 확보
편의항목	재사용전지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한 후, 표시를 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활동제 목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편의항목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해당 제품 관련 표시를 하므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③정부 :

☐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 목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편의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표시를 하므로 시장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의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 목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편의항목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제조업자가 관련 표시를 하므로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매할 수 있음
--	---------